

‘화선일여’ 선정에 빠지다

동성 스님 백악미술관 · 뉴욕 플러싱오픈센터서 ‘선화전’



동성 스님 백악미술관 · 뉴욕 플러싱오픈센터서 ‘선화전’

33년간 문화포교에 매진해 온 선화가(禪畫家) 동성 스님(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이 한창 그림공부에 몰두할 때 일화다. 21세 때 서울 성북동에 있는 운보 김기창 화백의 자택을 찾은 스님은 한 수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자 운보는 필담으로 선문답을 던졌다.

“세속을 떠난 승려가 왜 세속을 찾아왔나요?”
 “세속을 떠난 불법이 없고, 불법 속에 세속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속은 어떤 세속입니까?”

이날 첫 대면에서 의기상통한 두 사람은 네 시간 동안 필담을 주고받았으며, 운보는 동성 스님에게 7일 후 매화를 가지고 오라고 일렀다. 약속한 날, 스님은 매화를 구하지 못해 은행나무 분재 하나를 들고 운보를 찾았다.

그러나 운보 선생은 매화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매화 한 쪽을 그려주겠다고 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당대의 화가인 운보로부터 몇 달 동안 계도(啓導)를 받은 동성 스님은 자신있게 그림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오랫동안 화선일여(畫禪一如)의 정진에 몰두해 온 동성 스님이 화업(畫業) 30년을 정리하는 의미있는 전시회를 잇달아 갖는다. 불교신문(사장 혜자)이 4월 30일~5월 6일 서울 관훈동 백악미술관에서 저소득 실직가정을 위해 주최한 ‘동성 스님 초대 선화전’과

뉴욕불교사원연합회(회장 원영)가 주최하는 5월 10~16일 뉴욕 플러싱 오픈센터에서 여는 ‘동글고 밝은 빛 선화 표현전’이 그것.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동글고 밝은 빛’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선화전에서는 달마상, 천진불, 미소동자 등 6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에 출품된 선화들은 동성 스님의 선화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수작들로 더욱 관심을 모은다. 특히 10일 뉴욕 플러싱 오픈센터에서 500여 명의 예술로 시작되는 선화 표현전은 새로운 문화프로젝트로 주목된다. ‘동글고 밝은 빛’이 암시하듯 부처님은 과연 무엇을 깨달았는가,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인가를 화두로 고요하고 지혜롭고 행복한 열반묘심(涅槃妙心)을 찾는 선화 작업의 진수를 보여줄 전망이다.

뉴욕 선화전에는 동성 스님 작품 외에도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을 비롯해 성파, 원응, 수안 스님의 작품도 선보인다. 동성 스님은 1964년 양산 통도사에서 정덕 스님을 은사로 동진출가해 일찍부터 선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창작에 몰두해 왔다. 1976년 ‘한 송이 연꽃이 되어 전’을 시작으로 1993년 ‘깨달음과 자유의 달마도 전’, 2002년 ‘공-다르마 전’, 2005년 ‘동글고 밝은 빛 전’ 등을 통해 33년간 부처님 가르침을 말없이 전해 왔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스님은 인류의 평화제전인 월드컵의 정신과 일체만유의 근

본자리인 공사상(空思想)을 연계하는 상징적 의미로 ‘공을 든 달마’, ‘공을 메고 온 달마’ 등의 선화를 창작해 호평을 받았다. 또한 중국 섬서성미술관, 일본 고다이지 전시관에서 ‘공-다르마 특별초대전’을 열어 한국 선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이때부터 스님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스님은 2005년부터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이루자는 원력으로 일본 오사카 한국총영사관, 나고야 아이치켄 문화센터, 도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동글고 밝은 빛 전’을 열어 주목받았다. 이에 일본의 고승 양응(亮應) 스님은 “동성 스님의 선화는 오랜 구도과정을 거친 대승보살의 자비와 지혜의 원력이 담겨 있다”고 평했다. 스님의 선화는 현재 일본 오사카 사천왕사(四天王寺), 히메지 원교사(圓教寺) 등에 소장돼 있다. 2006년에는 중국 시안 대흥선사(大興善寺) 방장 계명(界明) 스님은 경내에 ‘사문 동성 달마화비’를 건립하면서 법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선미술인회 대표를 맡고 있는 동성 스님은 “선화를 창작하면서 번뇌를 고요한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편으로 ‘상구보리(上求菩提)’하고, 선화전을 통해 대중들과 함께 선(禪)으로 향하는 구도행을 통해 하화중생(下化衆生) 하게 된다”며 문화포교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010)9902-1858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국내 최초의 사찰전시회인 ‘팔공산 동화사’ 특별전이 4월 27일 국립대구박물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8월 16일까지 전시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전에는 마애불 좌상 탑본과 민애대왕 사리항아리 등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을 비롯해 아홉 마리 용이 달린 거북모양 받침 등 80여 점의 성보문화재가 선보이고 있다. 또 보조 국사, 흥진 국사, 사명 대사, 기성당 스님 등 팔공산과 동화사를 빛낸 고승들의 진영도 함께 전시됐다.

전시회를 주관한 동화사 주지 허은 스님은 “동화사 특별전이 사찰 문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와 교계 내부의 문화재 보존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립대구박물관 이내운 관장은 “천개가 넘는 국내 전통사찰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라면서 “동화사를 시작으로 많은 사찰 단위 전시회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팔공산 동화사 특별전’은 동화사의 역사와 가람 구조, 아미타불 신앙 등에 관한 다양한 해설 자료와 함께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공개된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보문화재의 전시가 늘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순법천 대구지사장

‘달마좌선도(위)와 동성스님(오른쪽)’



‘금강경’ 3가지 방식으로 형상화

10일까지 갤러리 진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금강경>을 주제로 하는 이색 작품전이 4월 28일~5월 10일 서울 종로 갤러리 진선에서 열린다.

중국 청해 태생으로 대표적 불교작가 왕지에(王階)의 ‘있거나 없는 답’전은 <금강경>의 5115자를 소재로 3가지 방식을 통해 <금강경>의 메시지를 형상화 했다. <금강경> 5115글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글자들을 하나씩 짝지어낸 작품과 글자를 하나하나 조각해 이를 다시 만다라로 형상화한 만다라 작품, 금강경 글자들로 범문 조형물을 형상화한 작품이 그것이다.

왕지에는 “금강경을 하나 하나 떼어내 놓으면 그 자체가 또 개별적으로 해제되지 않



왕지에는 만다라로 형상화된 <금강경>

는 또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전에 착안해 작품전 이름을 ‘있거나 없는 답’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02)723-3340

김성우 기자

心像 사진전

무상법문 설하며 등불 밝히니...

사진전을 통한 불교문화 전파에 앞장서온 사진동우회 ‘심상(心像, 화장 김원곤)이 석등을 주제로 창립20주년 특별기획전을 연다. ‘심상’은 불교 문화재사진 전문가 안장현 선생의 지도로 매년 주제를 선정, 작품집 발간과 함께 불교 사진전을 전문으로 여는 사진동우회.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전시를 개최해온 심상은 이번엔 ‘그대 마음을 밝히는 석등’을 주제로 5월 1~24일 기획전을 마련했다.

김원곤 회장은 “일년동안 마음의 불을 밝히려고 석등을 찾아 헤매었다. 금강안 타 외에서 있는 석등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 법문(無常法門)을 설하며 등불을 밝

다”며 “그대 마음을 밝히는 석등으로 초대한다”고 말했다. 전시일정은 1차 석왕사(5월 1~29일)에 이어 2차 부천시청아트센터(5월 8~13일), 3차 서울 청계천광교갤러리(5월 18~24일) 순으로 열린다. (011)774-1179 김성우 기자

김중욱 작 ‘청량사’

‘작은 불화’ 봉안 예정화 작품전

불화작가 예정화(兩真花)의 두 번째 불교회화전이 5월 4~12일 울산 현대백화점 울산점 갤러리 H에서 열린다.

작가는 불화를 배우는 과정을 보여 주었던 첫 전시에 이어 이번 전시에서는 ‘작은 불화’를 화폭에 옮겨 봉안하고자 했다. 예정화 작가는 “전전히 호응과 마음의 흐름을 살피며 불보살님을 옮겨 내는 동안 이미 ‘나’라는 작가는 존재하지 않는 듯 느껴진다”며 “진실한 내면의 ‘자기 부처’를 찾아 가는 과정이 곧 그 시대 불화를 ‘창신(創新)’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홍익대 미대 동양화과와 홍익대 예술대학원 회화학과(불교회화전공)를 졸업한 예씨는 제20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010)7673-3632 김성우 기자

예정화의 ‘작은 불화’

홍익대 미술대학원 회화학과(불교회화전공)를 졸업한 예씨는 제20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특선’, 제21

차용품 전문회사 홍다원

홍다원이 위치한 북촌지역(가회동, 삼청동 일대)은 조선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궁궐의 사이에 위치한 서울 600여년의 역사와 함께 한 전통 거주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어 예로부터 길지(吉地)로 알려져, 전설이도 합니다. 홍다원은 중국 전통의 보이차와 다구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보이차와 한의 맛과 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마스한 공간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수집한 50여가지의 고품질품도 전시하고 있어, 차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이차

홍다원은 10년 전부터 주재원이 상주, 근면의 운남성 차업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 전시된 보이차 · 목공예 작품과 함께 차를 시음하실 수 있는 공간

자사호

홍다원의 자사호는 이싱(宜興) 정산 황용산의 홍다원에 사용하며 직접 작가에게 주문의뢰한 작품을 취급하며, 고객이 원하는 작가의 작품 또한 주문생산하고 있습니다.



■ 퇴수기와 각종 차용품, 보이차를 진열한 공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4 www.hongdawon.com
 TEL : 02)744-3311 / FAX : 02)744-3700

www.jawonet.com

희담석 의담석

생명에너지의 방사력과 투과력이 탁월한 희담석 의담석, 온열매트 출시!!!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과 투과력이며, 제올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를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입니다.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백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세탁가능)
 제품구성 : 희담석별 필링기 외피 + 온도조절기 + 열판 (전자파가 거의 없는 무지개열선 사용)
 내용물 : 희담석 60% + 제올라이트(Zeolite) 40%
 제품크기 : ① 100cm x 50cm (사선) 가격 250,000원
 ② 165cm x 65cm 가격 480,000원

사용법
 속담을 도와주는 희담석 매트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79-48 궁곡빌딩 01028
 TEL: 02)3478-2335 FAX: 02)3478-2505